『종교와 문화』 제3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pp.147-175.

멜 깁슨의 「핵소 고지」에 나타난 종교적 가치: "신념 있는 시민교양"

김용성*·한금윤**

Ⅰ. 서론
Ⅱ.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과 신념
Ⅲ. 양심적 병역협력자와 공적 사회
Ⅳ. 기독교인 공적 삶에서 '사유화'와 '정치화'
Ⅴ. 결론

Ⅰ. 서론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형체를 이루는 세계적 매스컴들과 시장들은 경계와 소속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를 손짓한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그것들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자원은 세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우리의 생활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장소들과 이야기들, 기억들과 의미들, 사건들과 정체성들 속에서 아직 발견되어야 한다."[1]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2016년에

* 제1저자. 삼육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교수(영문학 전공)
** 교신저자.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조교수(국문학 전공)
1) 마이클 샌델,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욱 외 옮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8), 129.

개봉된 멜 깁슨(Mel Gibson)의 「핵소 고지」(*Hacksaw Ridge*)는 샌델이 제기하는 시민적 자원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영상문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45년 일본 오키나와(Okinawa)의 핵소 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전쟁 영화로, 이미 2004년에 만들어진 테리 베네딕트(Terry Benedict)의 다큐멘터리 영화 「양심적 병역거부자」(*The Conscientious Objector*)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핵소 고지」는 개봉과 더불어 곧바로 전 세계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였는데,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놀라움'과 '찬양'이 강했다. 실제로 「핵소 고지」는 여타 전쟁 영화의 스케일이나 무기, 화려한 연출이나 미장센이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전쟁 영화의 스토리와 영웅적인 인물에 익숙한 대중들이 「핵소 고지」에 큰 반응을 보인 것은 주인공 '도스'라는 인물의 독특함에 기인한다. 데스몬드 T. 도스(Desmond T. Doss)는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전쟁에 참여한다. 그는 격렬한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며, 존재의 용기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제공한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전쟁 영화에서 허구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한다.

도스는 체격이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종교인으로서 전쟁이라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4월 29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 오키나와에서 미국 육군 의무병으로 근무한다. 미국 육군 제77보병사단 제307보병 제1대대는 400피트(120미터)높이의 톱니 같은 거친 바위절벽의 핵소 고지를 점령하게 되나, 일본군의 강력한 반격에 의해 다시 후퇴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는데, 영화에서 도스는 그 와중에 퇴각을 미룬 채 자발적으로 일본군의 수중에 놓여 있던 75명이라는 부상병

들을 혼자 돌보고 피신시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는 쏟아지는 집중포화 속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부상당한 전우들을 한 명 씩 절벽 아래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며,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웅적 행동을 보여준다. 핵소 고지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총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부상병들을 돌보며 생명을 구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그는 심신의 고통과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기도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 후 비로소 철수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언론, 문화계, 대중의 「핵소 고지」에 대한 반응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전쟁 영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영웅을 통해 애국심을 찬양하고 고취하는 입장에서 도스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이다. 보통 전쟁 영화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영웅은 전쟁터에서 총과 칼을 들고 아군이 승리하도록 혁혁한 공을 세우는 전투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핵소 고지」의 영웅인 도스는 기존의 전쟁 영화 문법과는 다른 영웅성을 보여준다. 그는 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투력이 뛰어나 싸움에 능한 전투 병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 된다. 영화는 이러한 도스를 통하여 공적 삶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대인에게 애국심을 품은 인간이 보여주는 가치를 제안한다. 사회적으로는 취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공적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도스의 생명존중 사상과 사랑의 실천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삶에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임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무수한 포탄과 총탄으로 인해 인간의 육신이 파열되고 떨어져나가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의무병으로서 부상병의 목숨을 살리고자 열정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용기 있게 수행해 낸다. 영화 속에서 도스가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오랫동안 나타나는데, 그가 자신의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

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도스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존중 사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소 고지」에 대한 주된 해석은 '애국심'과 '생명존중사상'이라는 두 가지 주제어에 집중된다.

그러나 「핵소 고지」가 미국적 '애국심'과 종교적 '생명존중사상'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전쟁영화로만 해석된다면, 그것의 가치는 새로운 소재 발굴을 통해 상업적 흥행을 거둔 미국 대중문화의 성공적인 기획물로 한정될 수 있다. 「핵소 고지」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영화가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핵소 고지」에 대한 대중들의 감동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관 지어 논의할 때 영화에 대한 생산적인 해석과 의미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신기술이 쏟아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한 인간의 삶을 다룬 영화가 대중에게 감동을 준 실체가 무엇인지를 영화의 서사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핵소 고지」에서 전쟁터를 배경으로 수행되는 애국심과 생명존중 사상 그 자체가 감동을 주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애국심과 생명존중 사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해받지 못한 개인의 특수성이 온갖 어려움의 극복과 성공적인 공적 삶의 의무 수행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 구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스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국가 전쟁의 공적 세계가 충돌하는 가치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의 논리를 취하지 않는다. 그는 신앙인과 국가 시민으로서 공존 가능성을 치열하게 모색한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공적 시민으로서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전한다. 그가 보여주는 생명존중의 실천이 더욱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사적 신념이 공적 세계 속에서 충돌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와 소신으로 전쟁터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신앙인으로서 사적·공적 삶의 조화와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깊은 감동

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물질문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고, 사회는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복잡한 다층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신기술 사회가 도래한 21세기에 인간의 상태와 삶의 양상은 모순적이게도 더욱 심각한 피로 증후군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는 급변하는 삶의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의 출현을 원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인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핵소 고지」가 영화라는 장치로 종교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에 대한 역할과 소통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핵소 고지」는 무엇보다도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교양'에 대한 반성과 숙고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체 사회에서 종교인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특별히 종교가 인간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이 세상의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미래 종교로서의 역할 수행성"[2]을 강화해야할 시대적 상황에서, 「핵소 고지」의 주인공 도스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주는 "신념 있는 시민교양"의 가치는 영화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와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Ⅱ.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과 신념

마크 파이크(Mark Pike)는 C. S. 루이스(C. S. Lewis)의 '순전한 교육'(mere education)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서양문화는 자기만의 텍스트를 통해 특정 가치를 드높이고 영속화하려고 한다 … 교과서를 가치

2) 김용성, 「강원래의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장애의 고통과 구원」, 『문학과 종교』 21.4 (2016), 45.

판단이 내재되어 어린이의 삶에 이념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중립적이고 기술 위주이며 가치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태도는 우리 시대의 병적 현상이다"[3]라고 말한다. 루이스는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서 덕과 모험을 기대하고 … 명예를 비웃으면서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 생식력을 거세해 놓고선 다산을 기대"[4]한다고 말하면서, 현대사회의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루이스는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의 부재가 결국 '인간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파이크 역시 지식 편향적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도스가 보여주는 이타적인 행동이 '인간폐지'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인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의 긍정성을 획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개인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핵소 고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일본 오키나와의 핵소 고지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전투 장면으로 시작된다. 고지 탈환을 위한 마지막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사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도스 역시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 후송된다. 그리고 그때 성경구절이 부상병 도스의 희미한 의식을 사로잡는다.

>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5]

---

3) 마크 파이크,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송은정 옮김 (서울: IVP, 2017), 39-40.

4) C. S. 루이스, 『인간 폐지』, 이종태 옮김 (서울: 홍성사, 2012), 35.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노년의 도스 음성으로 성경 구절이 낭송되는 이 장면은 주인공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과 신념이 한 인간의 성장과 삶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용된 성경구절에 나오는 화자는 야훼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영화의 서사 구조는 도스의 군입대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반부에서는 도스가 유대·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타난다. 후반부에서는 체화된 신앙이 성숙한 신념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공적 삶에 영웅적인 힘으로 발현되는 과정이 묘사된다. 영화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서사의 후반부인 전쟁 상황에서 도스의 부상병 구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핵소 고지」가 기존의 전쟁 영화와 다른 가치를 지닌 점은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영화 전반부에 서사화 되었다는 점이다.

영화의 이야기는 도입 부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16년 전 도스의 과거 장면으로 이어진다. 어린 시절 도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도스(Thomas Doss)는 전쟁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술 중독자이자 가정 폭력자이다.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다. 전쟁 후 아버지는 마을 공동묘지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의 전우로 추정되는 잭(Jack)의 무덤이 인도로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개탄한다. 그는 다른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국가를 위해 참전하여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준다고 한탄하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술병을 깨는 물리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도스는 아버지가 묘지에서 술병을 깨고 손에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온 직후, 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우발

5) 「이사야」 41:28-31 (공동번역)

적으로 동생 해롤드(Harold)를 벽돌로 쳐서 기절시키게 된다.

이처럼 영화의 초반부에서 살인과 죽음의 모티프가 가족 관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관객은 서사 전개에서 여러 개의 폭력 에피소드가 왜 설정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살인과 죽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작품의 시작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전투장면으로 시작하고, 곧이어 토마스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짐으로써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행위가 노출된다.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전쟁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폭력적 상황과 등치되면서 공동체 사회에서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성케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시대적 상황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의 삶에 요구된 애국심이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근원적 사유가 가능하다. 영화가 가인의 아벨 살해를 떠올리게 하는 동생에 대한 도스의 폭력 장면에 연이어 폭력과 살인을 금하는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으로 관객의 시선을 이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도스는 동생을 벽돌로 쳐서 기절시키게 된 상황에서 죽음과 살인의 공포에 빠진다. 그는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공포의 극한 상황에서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주기도문과 십계명' 그림을 보게 된다. 그는 특별히 그림의 왼쪽 중간 부분에 적혀 있는 여섯 번째 계명에 주목한다. 그 부분은 살인을 금하는 계명과 더불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또 다른 그림을 담고 있다. 그는 그 그림을 자세히 바라다보면서 자신이 행한 동생에 대한 폭력이 일종의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은 후에 앞으로 살인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된다. 실제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자주 바라보았다.[6] 의자를 가져다놓고 의자 위에서 그 그림을 자세히 바라다볼 만큼 종교적 사유를 수행한 인물이다. 그 그림에서 나

6) 도스의 자전적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프란세스 M. 도스, 『2차 대전의 영웅 데스몬드 도스』, 시조사 옮김 (서울: 시조사, 2008).

타나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 동생 아벨을 잔혹하게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살인의 공포는 그로 하여금 생명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되는 것으로 극복되는데, 그 매개가 성경으로부터의 교훈이다. 그는 자신이 동생을 거의 죽일 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는 살인이야말로 신이 제일 노여워하시는 일임을 그에게 주지시킨다.

도스가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적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자신의 충동적인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며 반성하게 하는 어머니의 유대·기독교적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는 자신이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으로 무의식적 공포를 극복한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놓인 나약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의미 있는 인간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어머니의 종교적 가르침인 것이다. 어머니의 종교 교육은 도스가 폭력과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 종교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도스는 어머니가 행하는 기도와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일상 삶에서 신의 임재를 체험하며 종교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도스가 신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그것은 그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도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다. 한번은 어머니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 대한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권총을 빼앗아 부친을 살해 하려고 한다. 이 장면은 도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살인의 충동을 깨닫게 되는 경험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도스의 아버지는 전쟁에 다녀온 뒤부터 무척 폭력적인 술중독자가 되는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병적인 인간으로 추락한다. 도스는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양육에 힘입어 아버지의 폭력적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한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를 총으로 쏘려고 했던 그날 이후로 절대 총을 들지 않기로 자신의 신에게 맹세를 한다. 그에게 신은 "항상 참인 이름, 오로지 참일 뿐인 이름, 즉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언어 경험"[7]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살인을 금하라는 신의 명령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체화하고 삶의 신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전쟁을 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의무병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낼 수 있게 된다.

도스가 소신 있는 종교인으로서 공적 삶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게 한 종교는 유대·기독교 전통에 따른 복음주의 신앙이다. 그의 어머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8] 산하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종교 교육 하에 신실한 재림교회 신앙인으로 성장한다. "어떤 공동체의 '기풍'이나 개인의 '성품'은 근본적 신념과 가치에서 비롯된다"[9]고 볼 수 있는데, 도스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스가 다니던 교회의 신앙적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국헌은 재림교회의 신앙적 전통이 "표층적으로는 19세기 미국의 전통으로부터, 내층으로는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심층으로는 초기교회의 신앙전통에 닿아 있다"[10]고 주장한다. 재림교회는 19세기 초반 제2차 종교 대각성(The Great Revival)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다양한 대안 기독교운동 중의 하나로 출현"[11]하였다. 성경에 약속된 예수 재림의 때가 속히 오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기독교 복음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특별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관점에서

7) 조르조 아감벤, 『언어의 성사』, 정문영 옮김 (서울: 새물결, 2012), 115.
8) 이후 '재림교회'로 줄여서 표기함.
9) 마크 파이크,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222.
10) 이국헌, 『싸바테리안』 (서울: 시조사, 2014), 9.
11) 이국헌, 「19세기 미국 종교사에서 재림교회의 위치와 신앙전통」, 『종교연구』 75.4 (2015), 239.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기풍'을 지닌 교회 중의 하나이다. 영화에서 도스가 보여주는 안식일 준수, 집총거부, 채식주의, 술과 담배를 금하는 절제 생활 등은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을 중시하는 재림교회의 신앙관과 기풍을 반영한 것이다.

영화에서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의 도스는 재림교회의 신실한 신앙적 가르침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념화한 인물이다. 그는 술을 먹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숙부 두 명이 흡연으로 사망한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술과 담배를 멀리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또한 동물 도살장면을 본 후에는 채식주의자가 된다. 도스의 삶에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채식주의의 태도는 재림교회의 식생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8년 동안 매주 교회에 정각 출석하며, 안식일 학교 성경 교과 공부 교재를 매일 공부할 만큼 신앙생활에 충실하였다. 먼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삶을 꿈꾸기도 했던 도스는 자신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신의 은혜에 감사해 하는 성숙한 종교인이다. 어렸을 때에 깨진 우유병에 인대와 근육이 끊어져서 왼손을 사용치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스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 또 암벽에 무릎이 까여서 독이 심각하게 감염된 상황에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던 때에도, 자신의 동생 해롤드가 고열로 고생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 도스는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늘 신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확신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종교가 "사랑하는 자, 열정을 지닌 자, 이윤을 취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정열을 지닌 실제적 인물,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미친 사람처럼 희구하는 자, 이해를 초월한 사랑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12]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에, 도스는 기독교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종교적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확실한 신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재림교회의 신앙적 기풍은 "최고의 선에 도달하

12) 존 D. 카푸토, 『종교에 대하여』, 최생열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8-9.

는 것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든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13]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종교는 루이스가 중요시했던 어린 아이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일종의 '순전한 교육'이었던 것이다.

Ⅲ. 양심적 병역협력자와 공적 사회

재림교회의 신앙관은 궁극적으로 하늘 신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지상의 삶도 하늘 신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 복음을 온 세상에 속히 전함으로써 예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한 세계관과 태도를 준거하는 원천이다. 자연스럽게 재림교인은 성경을 그들 삶의 바람직한 신앙에 대한 준거의 틀로 여긴다. 재림교인인 도스가 보여주는 안식일 준수, 집총거부, 채식주의, 절제생활 등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의 신앙관에 대한 확실한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으로서 한 재림교인의 사적인 신앙관은 공적 삶에서의 정치가 요구하는 조건과 충돌을 수반하기도 한다. 「핵소 고지」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신앙과 공적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설정된다. 영화에서 서사의 핵심은 도스의 영웅적인 행동에 있기보다는 사적 신앙과 공적 요구 사이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스의 종교인으로서 선택과 행동에 있다. 자원입대하는 재림교인 도스의 사적인 신앙관과 생활양식은 그 시대의 국가 전쟁이라는 공적 상황에서 다소 낯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면, 도스는 집총훈련 시에 글로버(Glover) 대위에게 사람의 생명을 뺏는 총기를 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총기 수령을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협력자(conscientious cooperator)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안식일 준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 도스는 일과 시간인 토요

13) 폴 틸리히, 『존재의 용기』, 차성구 옮김 (서울: 예영, 2015), 39.

일에 안식일 예배를 준수하고, 군인으로서 당연시되는 집총을 거부한다. 전쟁이라는 공적 준거 틀에 부합하지 않는 군인의 행동은 그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도스의 신앙에서 비롯된 사적 행위에 대해 공적 사회의 반응은 가혹하게 나타난다. 하웰(Howell) 상사는 전쟁터에서 도스가 총기를 들지 않고 혼자 양심의 문제로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동료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훈련병들에게 말하고, 도스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는 도스의 신앙적 신념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행을 외면하는 이기적 신념이라고 비난한다. 동료 훈련병인 스미티(Smitty)는 내무반에서 도스의 성경책을 빼앗고, 그의 재림교회 신앙을 조롱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내무반의 다른 동료들도 밤마다 도스를 구타함으로써 그의 신앙적 신념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기본군사 훈련과정이 끝난 후에도 사격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휴가자 명단에서 혼자 제외되고 휴가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써, 휴가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글로버 대위는 도스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군에서 쫓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도스는 집단 구타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불명예 전역을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협력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 재림교회는 미국 남북전쟁 기간이었던 1863년에 이루어진 강제징집 체제 하에서 비무장·비전투원(noncombatancy)의 입장을 취하고, 1864년에 미국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교회 청년들의 위생병 군복무를 위하여 교단의 대학에서 "응급 구호법과 기초간호교육을 실시"[14]하였고, 1917년에는 다시 신앙적 양심에 의한 비무장·비전투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밝힌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재림교회는 교단의 대학에 대학 의무대(College Medical Corps) 제

14) 오만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서울: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 2002), 39.

도를 만들어 기초 간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징집 대상 젊은이들이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재림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안식일 신앙을 좀 더 수월하게 지키기 위해 의무병 복무를 대안적인 군복무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도스는 재림교회 청년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바탕을 둔 양심적 병역협력자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적 세계에서 모욕과 낙인찍기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스는 자신의 신앙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지키며 군복무 임무를 수행하는 시민 교양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군 교도소 생활 중에, 과거에 집에서 부모님의 언쟁 중에 권총으로 어머니를 위협하던 아버지를 완력으로 막아내던 장면을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개인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개인적 신앙의 고백과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를 통해 신념이 없는 일상생활은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약혼녀 도로시(Dorothy)가 군 교도소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공적 권력에 적당한 타협을 하도록 부탁할 때에도, 오히려 도로시에게 신념이 없는 남자와 살고 싶은지 되물으며 계속해서 신념 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그에게 "집총거부는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비폭력적 수단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신앙 양심의 입장이었고 안식일 준수는 비록 군대에서라도 …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신앙 양심의 표시였다."[15] 결과적으로 그는 상관명령 불복종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감형을 받는 대신에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워싱턴 D.C에 있는 사령관 머스그로브(Musgrove) 장군의 편지가 재판장에게 전달되게 되고, 도스는 미국헌법의 비준 하에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군

15) 오만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15-16.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운환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인해 병역이행이 칭찬받을 행위이고 병역거부가 비난받을 행위라는 기존의 대칭적 개념이 와해됨으로써, 오히려 병역이행이 비양심적 행위이고 병역거부가 양심적 행위가 될 수 있는 혼란을 지적한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완전히 틀리거나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많은 오해와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용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16] 라고 말한다. 적절한 대체용어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의 사용을 제안하다. 그는 병역거부의 직접적인 행위 근거가 양심이 아닌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대체용어의 사용을 제시한다. 그러나 신운환의 주장은 단일한 형태의 병역이행만을 가정함으로써 그것이 양심이든 혹은 신념이든 상관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을 부정적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하게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복무형태와 대체복무 제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측면이 있다. 여러 형태의 대체복무 제도를 통한 전향적 미래의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오히려 양심적 병역협력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며 필요하다.

도스는 양심적 병역협력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복무형태를 제시하는 21세기 형태의 병역의무의 안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달숙은 "양심에 대한 법적인 논의는 일반적 법원칙, 일반적인 윤리적 의식, 보편타당성, 보편적 윤리의식이 아닌 구체적 상황 하에서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17]라고 말한다. 한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

16)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법 연구』 46 (2016), 397.

17) 나달숙,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법학논집』 34.2 (2010), 119-20.

제가 매우 다양하고 특수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이 "특정한 양심의 내용 및 형식에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감시기관 혹은 최종적 판단기준으로"[18]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에, 도스의 양심적 병역협력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존중 사상에 바탕을 둔 신념 있는 종교인의 양심적 행동으로 현대 사회에 생산적인 대안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기독교인 공적 삶에서 '사유화'와 '정치화'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기독교인의 공적인 삶에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함정으로 '사유화'와 '정치화'를 지적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 받은 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정당노선 — 혹은 정치운동, 강령, 의제 등 — 에의 동조 사이의 긴장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19]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관을 확고하게 견지할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에 따르면, "시민교양은 곧 공적인 예의이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해심을 품고 기지, 중용, 고상한 태도, 예절을 베푸는 것이다."[20] 도스는 생명존중 사상과 안식일 예배 준수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공적 삶에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낸다. 그는 신앙인의 '사유화'와 '정치화' 사이의 긴장 관계가 조화롭게 발현되는 시민교

---

18) 나달숙,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120.

19) 오스 기니스, 『소명』,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0), 261.

20)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14), 20.

양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도스가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요구되고 지켜야할 공적 시민정신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신에게 신앙의 사적인 영역과 국가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이 충돌하는 상황에 있지만, 도스는 강한 신념으로 신앙적 가치관을 공고히 하고 공적 시민으로서의 참여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 그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생명과 삶에 대한 매우 높은 도덕적 개념을 지니고 출발했던"[21]사람이다. 마우는 "좋은 시민이 되려면 편하고 친숙한 연줄에만 기초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낯선 자들 가운데서 처신하는 법, 예의바르게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하는데, 그들과 안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22]라고 주장한다. 도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지만, 자신의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공적 시민의 사명을 다한다.

핵소 고지에서 도스의 부대는 공격과 후퇴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르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다. 일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해군의 포격을 피하고, 포격이 끝난 후에 진입하는 미군을 공격한다. 전쟁터에 산재한 무수한 시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치열한 전투 속에 늘어나는 사상자, 부상병들의 고통에 찬 고함과 살려달라는 절규 등의 상황에서 도스는 무장 전투원이 해낼 수 없는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 그는 동료들이 참호에서 쉴 때에도 부상병을 찾으러 나서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는 재림교회의 생명존중 신념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

---

21) D. M.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제14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14:1-17)』 서문 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53.

22)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22-23.

의 한계를 넘어서는 숭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전투 중에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비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분유될 수 있는가"[23]를 질문하면서 인간사회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민다움'(civilité)의 정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비폭력**과도, 폭력을 예방하거나 폭력에 저항하는 **대항 폭력**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24]고 말한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시민다움'은 "시민들이 본유적으로 향유하는 인권적 권리인 시민권(citoyenneté)을 넘어서 사적, 공적으로 추구해야 할 윤리를 함의하는 정치적 용어"[25]로서 "정체화와 탈정체화의 운동(또는 인간적 유대를 가능케 하는 정체성 내부에서 정체화와 거리두기), 따라서 집합적인 것이 지닌 역량 자체로부터의 물러섬"[26]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다움'의 정치가 도스가 행하는 "신념 있는 시민교양"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스는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반대로 국가의 군인이지만 살생을 거부하면서 피아를 떠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 규범적 정체화를 탈피함으로써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발리바르의 '시민다움'의 가치를 보여준다.

영화에서 도스가 행하는 기적적인 장면은 핵소 고지의 지하참호에 숨어 있던 일본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퇴각을 할 때에 이루어진다. 쏟아지는 포격과 총격으로 인해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일본군 진영에는 여전히

---

23)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진태원 옮김 (서울: 난장, 2012), 144.

24)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144.

25) 이국헌, 「발리바르의 "반폭력" 개념에 나타난 기독교 정치학적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37 (2014), 66-67에서 재인용.

26)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135.

후퇴를 하지 못한 수많은 미군 부상자가 남게 된다. 미군은 핵소 고지 절벽 아래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32명만이 고지의 절벽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여전히 고지 위에서 부상병들을 응급조치하고 있는 도스는 자신에 대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 참담한 살육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워 한다. 그리고 일본군 진영에 남아 있는 전우들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쏟아지는 포탄과 사격으로 인해 자신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전쟁터로 달려가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응급치료하고 한 명 씩 절벽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부상병들을 절벽 아래로 내려 보낸다. 미국 해군의 포격이 중지된 후에 일본군들이 살아있는 부상병들을 확인사살하기 위해 순찰을 할 때에도 갖은 노력을 다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찾아내어 안전하게 절벽 아래로 대피시킨다. 그는 계속해서 신에게 한명을 구하면 또 한명만 더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명에 또 한명씩을 더하여 총 75명이라는 많은 부상병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심지어는 적군인 일본군 부상병도 절벽 아래로 내려 보낸다. 생명존중에 대한 그의 종교적 신념은 적군과 아군을 떠나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행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핵소 고지 전투에서 도스는 놀라운 정신과 신념으로 부상병들을 구한 후에 자신도 절벽 아래로 가까스로 내려오게 된다. 잠시의 치료와 휴식 기간을 보낸 후에 도스는 자신의 중대가 다시 핵소 고지 재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됨을 알게 된다. 글로버 대위는 자신이 그동안 도스에게 잘못 대한 것을 언젠가는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지 재탈환 임무에 도스만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안식일에 작전이 이루어지지만, 도스가 같이 임무에 참여해 준다면 다른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작전 개시일인 안식일에 도스의 부대는 절벽 아래에 도열해 있고, 곧이어 미국 해군의 핵소 고지에 대한 포격이 이루어진다. 해군의 포격이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도록 도스의 중대는 핵소 고지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스의 안식일 예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부대원들은 핵소 고지로 진격한다. 도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는 국가 시민으로서 공적인 인무를 수행한다. 격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도스는 다리에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송 중에도 잃어버린 자신의 성경책을 찾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핵소 고지에서 절벽 아래로 이송되기 전에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경책을 되찾고, 공적 임무를 다하는 신앙인으로서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며, 귀국 후 전쟁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 도스를 통해서 종교가 인간에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며 의미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시민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법(또는 도덕률)을 추구하려는 의지"[27]를 넘어서는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라고 하겠다. 도스는 굳이 군에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군 입대 전에 배를 개조하여 다시 군용함선으로 만드는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집을 피할 수도 있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혼자 군복무 의무를 피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는 판단 하에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임무를 다하고자 의무병으로 참전한 것이다. 군 입대 시에 그는 도로시가 준 성경을 읽으며 신념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다. 그의 동생 해롤드 역시 참전이 반드시 살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래 세대인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인이 부족한 때에 공장에서만 일하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도스는 생명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신념 있는 신앙인으로서 전쟁 상황 속에서 시민교양인의 공적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공적 삶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

27) 마크 파이크,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28.

민성을 변증법적으로 수용하는 시민성의 전제가 된다."[28] 기독교인은 신앙인으로서 '사유화'와 '정치화'의 극단을 극복하는 시민 교양인의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베드로와 바울은 당대 로마의 통치권 하에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노예이거나 혹은 다양한 어려운 조건 하에 처하게 됨으로써 영적 신앙생활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한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하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에게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29]하라고 말하며, 바울은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 …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30]없다고 말한다. 베드로와 바울은 기독교인이 공적 삶에서 취할 때 겪는 문제를 인지하면서 시민정신에 충실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권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념 있는 시민교양"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자세로 이해했던 것이다. 기독교인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은 공적 제도나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신념이 동반된 시민교양이기 때문에 반동적 기회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사랑이라는 보편적 인류애를 함의하는 신앙의 본질의 구현이다.

1954년에 미국 재림교회는 교단차원에서 '정부와 전쟁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 진정한 기독교는 민간 정부에 대한 충성과 훌륭한 시민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

28) 김우미,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2 (2009), 67.

29) 「베드로 전서」 2:18 (공동번역)

30) 「로마서」 13:1,3 (공동번역)

> 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정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대신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봉사를 제공하신 그들의 신성한 주님의 모본을 따라 비무장 전투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수용하여 정부에 대하여 충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 복무이든지, 군복무이든지, 전시에나, 평화 시에나, 제복 차림으로나, 평복 차림으로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하는 비무장 전투원의 기능으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한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기능들로 봉사할 수 있기만을 요구한다.[31]

위의 결의안을 살펴보면, 재림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기풍을 중시하는 동시에 이 세상 국가에서도 시민교양인의 의무를 다하고자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라는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림교회가 분파를 넘어 교파로 발전하기까지 초창기부터 많은 공헌을 한 인물 중의 한명인 엘렌 G. 화이트(Ellen G. White)는 재림교회의 공적 삶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글과 말에서 법률과 질서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표현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우리가 국가와 법률에 불충성을 조장하는 자들로 기록되지 않도록 범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2]라고 말한다. 로널드 로슨(Ronald Lawson)도 "재림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공적 관계의 기술들을 발전시켰고, 충돌회피가 그들의 대외 관계의 중심주제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성공은 전반적으로 정부와 다른 교회와 사회와의 현저한 긴장완화에 의해 나타났다"[33]고 말한다. 로슨이 말하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인 공적 삶에서의 '사유화'와 '정치화'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여 왔

---

31) 오만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215에서 재인용.

32) 엘렌 G. 화이트, 『증언보감』 Vol. 3, 시조사 옮김 (서울: 시조사, 1990), 45.

33) Ronald Lawson, "Sect-State Relations: Accounting for the Differing Trajectories of Seventh-Day Adventists and Jehovah's Witnesses," *Sociology of Religion* 56.4 (1995), 374.

다. 재림교회는 21세기에도 교단의 발흥 시기에 지녔던 주요 신앙적 기풍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기풍은 기독교인의 공적 삶에서 인간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교양의 가치로 구현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핵소 고지」에서 도스가 보여주는 양심적 병역협력자로서의 모습은 이러한 재림교회의 역사와 기풍을 반영한 것이다.

Ⅴ. 결론

「핵소 고지」는 기독교 신앙인 도스를 "가장 믿기지 않는 영웅"(the unlikeliest HERO)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화이다. 도스가 핵소 고지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의 숫자가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100명이 넘든지 아니면 그의 겸손한 말대로 50명이든지 간에 비무장전투요원으로 그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행위는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생명존중 사상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영화의 시작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투, 제1차 세계대전의 상흔, 도스가 동생을 벽돌로 치는 폭력, 그리고 아벨에 대한 가인의 살해 그림 등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애국적 영웅주의는 폭력과 살인이 아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이다. 따라서 작품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핵소 고지」가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다.

도스는 재림교회 신앙인으로서 양심적 병역협력을 통한 "신념 있는 시민교양"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안식일 준수,' '생명존중 사상에 따른 집총거부와 채식주의,' '오직 성경' 등과 같은 재림교회의 신앙적 기풍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서, 사적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견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공적 삶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수행해낸 인물이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폭력과 회유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시민으로서 공적 사회에 기여해야할 임무를 다하고자 양심적 병역협력자로서 군복무에 임한다. 아울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치열한 전쟁터에서 비무장 상태로 혼자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구해내는 기적적 행동을 수행한다. 그는 전쟁터에서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고백적 양심과 행동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도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징집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는데도 병역을 회피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협력자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공적 사회에서의 요구와 개인의 신앙적 신념 사이의 긴장을 극복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시민교양 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시민교양을 넘어서는 가장 믿기지 않는 영웅적 행동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는 병역의 수행 차원을 넘어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종교 대각성 시대에 조직된 재림교회 교단에 속한 교인으로서 재림교회의 신앙적 기풍을 바탕으로 공적 삶에 있어서 인간이 취해야할 시민교양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고도의 신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 다른 신념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다른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예의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도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기를 거부한다. 타인에게 작은 공간을 내주는 것조차 분개한다."[34]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

34)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14), 18.

회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 맺기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성이 약화될 수 있는 첨단 과학과 물질주의 시대에 올바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특별히 삶의 양식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사회는 '시민교양'을 필요로 한다. 종교의 윤리적 기능에 바탕을 둔 "신념 있는 시민교양"은 가장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애를 발현하게 하는 가치 있는 담론일 수 있다. 샌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희망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의존하는 시민생활을 복구하려는 신념과 자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35] 「핵소 고지」에 나오는 주인공 도스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 자신의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감, 공동선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공동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잘 숙고하는 능력"[36]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재림교회 신앙의 기풍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는 가장 믿기지 않는 영웅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신념이 미래의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신념 있는 시민교양"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본질적으로, 「핵소 고지」는 한 종교인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 인간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취약한 현대인으로 하여금 종교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주제어: 애국주의, 생명존중 사상, 양심적 병역협력자, 신념 있는 시민교양, 핵소 고지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9일

35) 마이클 샌델,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131.
36) 마이클 샌델,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189.

참고문헌

기니스, 오스. 『소명』.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0.

김용성. 「강원래의 〈엘리베이터〉에 나타난 장애의 고통과 구원」, 『문학과 종교』 21.4 (2016): 33-53.

김우미.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2 (2009): 47-71.

나달숙.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 개념의 비교적 고찰」. 『법학논집』 34.2 (2010): 97-120.

도스, 프란세스 M. 『2차 대전의 영웅 데스몬드 도스』. 시조사 옮김. 서울: 시조사, 2008.

루이스, C. S. 『인간 폐지』. 이종태 옮김. 서울: 홍성사, 2012.

마우, 리처드.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14.

발리바르, 에티엔. 『폭력과 시민다움: 반폭력의 정치를 위하여』. 진태원 옮김. 서울: 난장,
2012.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법 연구』 46 (2016): 389-415.

샌델, 마이클.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욱 외 옮김.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8.

아감벤, 조르조. 『언어의 성사』. 정문영 옮김. 서울: 새물결, 2012.

오만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 서울: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 2002.

이국헌. 「발리바르의 "반폭력" 개념에 나타난 기독교 정치학적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37 (2014): 59-91.

_____. 『싸바테리안』. 서울: 시조사, 2014.

_____. 「19세기 미국 종교사에서 재림교회의 위치와 신앙전통」. 『종교연구』 75.4 (2015): 237-60.

이정은. 「루소의 종교적 관용의 근거와 의미」. 『헤겔연구』 40 (2016): 255-83.

존스, D. M. 로이드. 『로마서 강해 제14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14:1-17)』. 서문 강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카푸토, 존 D. 『종교에 대하여』. 최생열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틸리히, 폴. 『존재의 용기』. 차성구 옮김. 서울: 예영, 2015.

파이크, 마크. 『C. 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 송은정 옮김. 서울: IVP, 2017.

화이트, 엘렌 G. 『증언보감』 Vol. 3. 시조사 옮김. 서울: 시조사, 1990.

Hacksaw Ridge, Mel Gibson (2016), David Permut, Icon Film Distribution.

Lawson, Ronald. "Sect-State Relations: Accounting for the Differing Trajectories of Seventh-day Adventists and Jehovah's Witnesses." *Sociology of Religion* 56.4 (1995): 351-77.

Abstract

Religious Significance in Mel Gibson's *Hacksaw Ridge*: "Convicted Civility"

Kim, Yong-sung (Sahmyook University)
Han, Keum-youn (Sahmyook University)

Mel Gibson's *Hacksaw Ridge* portrays an artistic vision of "convicted civility" which retains significance in modern society of high technology. It was mostly regarded as a movie which places an emphasis mainly on patriotism and life respect though. However, the movie as an art deals with an important theme of "convicted civility" which illustrates how people with religion beliefs should interact with others in the real world. Desmond Doss, a U.S Army medic, is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who miraculously saves over seventy-five injured soldiers in the battle of Hacksaw Ridge, in Okinawa during the World War II. Doss, a Seventh-day Adventist, who has firm belief in the Christian faith decides to follow the word of God especially when he faces two crucial moments in his early life. When the World War II breaks out, Doss had a good reason to be exempt from being enlisted, but he voluntarily joins the Army as a medic and a conscientious cooperator. Trying to keep the Sabbath on Saturday and refusing

to carry a gun, he experiences difficult times in the Army. However, Doss heroically rescues a large number of injured soldiers in battles demonstrating his “convicted civility.” “Convicted civility” can be an alternative value that modern society needs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Patriotism, Life Respect Thought, Conscientious Objector, Convicted Civility, Hacksaw Ridge